



## 어도비 '시간의 미래' 보고서: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기업의 디지털화와 협업 촉진

- 관리자와 실무자 70% 이상, 직장 내 변화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
- 직원 대다수가 근무 시간 중 뉴스 소비 확대(70%); 75%는 속보가 수시간 동안 생산성에 영향 줄 수 있다고 답변
- 협업과 심리적 안정 위해 업무에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에 대한 기대치도 더욱 높아져

2022년 9월 30일, 서울 - 어도비가 글로벌 업무 트렌드 변화에 대한 ['시간의 미래: 불확실성 속 생산성의 재정의\(Future of Time: Redefining Productivity During Uncertainty\)'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자 및 실무자의 70% 이상이 오늘날 직장 내 변화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생산성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 디지털 도구에 의존하는 경향도 보였다.

토드 거버(Todd Gerber)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 부사장은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직원 복지와 생산성에 빈번히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다”며 “기업이 거시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려면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Adobe Document Cloud)와 같은 최신 생산성 및 워크플로우 도구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의 생산성과 협업, 혁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업무 생산성과 협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8개국 실무자, 대기업 기업 관리자 및 중소기업 임원 9,700여 명의 조사 결과에 기반한다. 불안정한 경제와 기후 변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는 각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리자와 실무자의 70%는 전년보다 직장에서 뉴스를 접하거나 뉴스에 대해 토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대다수(76%)의 실무자가 뉴스 속보로 인해 하루에 수 시간 동안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 직원의 효율성과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Z세대(93%)와 밀레니얼 세대(87%)가 X세대(79%), 베이비부머 및 이전 세대(71%)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무자의 절반 이상(58%)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요소로 업무를 꼽았다. 모든 규모의 회사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들 역시 업무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실무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프로세스나 창의적 접근을 통해 업무 혁신이 필요해졌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은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도할 기회를 얻어 내년에는 혁신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을 통해 더 나은 협업 및 혁신의 기회 창출

지속적인 업무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레거시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등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 대기업 관리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해의 불확실성 속에서 실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다.
- 관리자 중 84%가 업무 효율성(중소기업 62%, 대기업 66%)과 업무 문화(중소기업 58%, 대기업 63%) 등 업무 환경 혁신을 통한 이점을 최소 하나 이상 목격했으며, 상당수가 일과 삶의 균형(중소기업 31%, 대기업 34%)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 최신 기술 및 복지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 확인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직원들은 최신 기술과 직원 복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회사에서 목표지향적인 업무를 하길 기대하고 있다.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실무자 56%, 중소기업 임원 63%, 대기업 관리자 71%) 전년보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한 조직 문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며, 조직 문화 구축에 적극적일수록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자의 3분의 2 이상은 내년에 조직 문화가 더욱 협업적이고(중소기업 임원 69%, 대기업 관리자 76%) 디지털화(중소기업 임원 71%, 대기업 관리자 81%) 되어 직원과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리자 및 실무자의 10명 중 7명은 디지털 도구를 통해 직장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생산성을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과반수의 관리자(중소기업 임원 59%, 대기업 관리자 68%)는 불확실한 시기에 실무자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도구와 리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직원과 관리자의 70% 이상은 디지털 솔루션이 직장 내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자가 직원의 복지를 원활히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직원과 관리자 간 더 쉬운 피드백 교환, 직원 간 협업 향상 등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생명 공학 분야의 선도기업인 리제네론(Regeneron)의 제이 굴라티(Jai Gulat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지능형 자동화 부문 글로벌 총괄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근무하고 생활하는 요즘 시대에 과학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가 최상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리제네론은 어도비 애크로벳 사인 등의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내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통해 문서를 서명하는 사람이 기록을 빠르고 쉽게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개인과 모든 규모의 기업이 기존 프로세스를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어도비 애크로벳\(Adobe Acrobat\)](#), [어도비 애크로벳 사인\(Adobe Acrobat Sign\)](#)과 더불어 [애크로벳 리더\(Acrobat Reader\)](#), [어도비 스캔\(Adobe Scan\)](#)과 같은 강력한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다. 어도비 애크로벳은 데스크톱,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G-Suite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업계 최상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PDF 솔루션이다. 어도비 애크로벳 사인은 누구나 모든 디바이스에서 문서 서명과 전송이 가능한 선도적인 전자 서명 솔루션이다.

어도비의 ‘시간의 미래: 불확실성 속 생산성의 재정의’ 보고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사방법론

‘시간의 미래: 불확실성 속 생산성의 재정의’ 보고서는 2022년 8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등 8개 국가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관리자 1,400명 및 실무자 3,500명, 중소기업 임원 1,400명 및 실무자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뉴스나 사건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화가 기업의 생산성, 업무 문화 및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다.

## 어도비에 대해

어도비는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도비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어도비코리아의 [공식 페이스북](#)과 [뉴스룸](#)에서 확인 가능하다.

###